

헛된 것과 참된 것 -전도서-

전도서 1:1-8, 에베소서 4:15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고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환경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현장에서 일곱 램프처럼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예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소명, 천명을 발견케 하시며, 모든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가 되어 현장에서 빛과 소금,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자신과 후대, 가정과 성도들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미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연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를 중심으로, ‘헛된 것과 참된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1) 먼저 ‘전도서’라는 제목의 의미를 설명드리겠다. 왜 전도서냐 하고 물어보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지 하는 정도다. 조금 깊이 아는 분은, 솔로몬이 왕보다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는 정도다. 하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전도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런데 전도서라는 이름은 왜 붙게 되었는가? 히브리어에서는 이 성경을 코헬렛(*qoheleth*)이라고 했다. 설교사, 연설자, 사람들을 모집해서 연설하는 자라는 의미다. 솔로몬의 별명이 코헬렛이었다고 한다. 왕이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일 것 아닌가? 거기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지혜를 이야기했다고 한다. 코헬렛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헬리어로 번역되면서 에클레시아스테스(*ekklasiastes*)라고 번역되었는데, 모임, 회중, 회중 앞에서 연설하는 자라는 의미다. 영어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 말을 쓰고 있다(Ecclesiastes). 여기에서 나온 말이 신약에 나오는 교회, 곧 에클레시아다. 모임, 회중, 그런 의미다. 한국어로는 그런데 왜 전도서인가? 한국어 성경은 헬리어, 라틴어가 아니라 중국어 성경에서 제목을 따왔기 때문이다. 결국은 솔로몬이 자기가 전도자 되기를 바라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학자들이 전도서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다. 그래서 교회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 또는 그런 모임이라는 의미가 이 책의 제목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도자’라는 말은 ‘설교자(preacher)’로도 번역되는데, 결국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왕이면서 설교를 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다.

(2)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인물이 솔로몬이다. 이 사람이 세 편의 성경을 썼는데, 첫째가 아가서다. 여기에는 왕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아마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쓴 사랑 노래가 아닐까 하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다. 그리고 잠언서는, 나라가 강성하고 자신감이 넘칠 때 기록했던 것 같다. 그런데 전도서는 분위기가 다르다. 나라가 쇠락해가고 솔로몬 자신도 늙어갈 때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잠언은 힘이 넘치는데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고 힘이 있었다. 주변 모든 나라가 다 경배해 왔다. 솔로몬은 부인이 700명일 정도였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정략결혼으로 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 보부당당하고 무서울 게 없었다. 잠언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예루살렘 왕’이라고 한다. 솔로몬의 후반기에는 이방에서 온 이 여자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다.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왕권도 약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자식 대에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나. 그리고 자기는 병들었고 나라는 점점 작아진다.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선 것이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했던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었구나. 내가 인생을 교만하게 헛되이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이, 헛되다고 고백하지 않고,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란다.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분의 인생이 아쉽다. 헛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 장로님이신데,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제대로 했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어느 분야, 어떤 위치에 있지 간에, 많은 것을 받았다면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한다. 김종필 전 총리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 “정치는 허업(虛業)이다.” 한 시대의 정치를 했던 분이 한 이야기 아닌가? 내가 어릴 때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고 국무총리는 김종필 총리밖에 없는 줄 알았다. (웃음) 그런 분이 허업이라고 했다. 잘 깨달은 것 같다.

(3) 전도서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권력, 돈, 다 의미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하고 누렸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전도서는 이것을 인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것은 특히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 솔로몬은 역사상 초유의 재산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것이다. 결론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한다. 마약 환자들과 상담을 요즘 하고 있는데, 돈이나 권력이 다 헛된 것이다 했더니, 환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다. “강사님, 쾌락은 허무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더라. “비아그라를 해 보셨어요?” (웃음) 그게 왜 필요하냐. (웃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많이 배웠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마약을 경험한 사람의 상태보다 못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계속 만족을 위해서 마약을 하고 도박을 했는데 결국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더 감동을 받았다. 돈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손을 들고 이야기했다. “맞습니다. 제가 도박장 운영을 하면서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뚝이었을 뿐입니다.” 돈과 시간이 생기면 하는 일이 죄 짓는 것밖에 없지 않나. 대부분 그렇지 않나. 그렇게 말했더니 한 분이 또 이야기했다. “저는 마약 공급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억 원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수백을 당해서 도망쳐서 부인과 같이 산 밑에 숨어서 살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약환자들보다 더 못 깨달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스도로, 복음과 전도로 결론 내지 못하고, 뭔가 다른 성공, 다른 돈을 찾고 있는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많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하는 것 아닌가? 솔로몬에게 배우고, 마약 환자에게 배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한번 증인으로 모시고 와야 하지 않겠나 싶다. 나는 체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정말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기를 축원한다. 어떤 분은 강남의 고급 클럽 이야기를 해 줬다. 자기가 거기에 초청받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가서 치유사역을 하자는 것이다. 연예인, 재벌2세, 운동선수 같은 최고 인물들이 모이는 클럽인데, 전부 타락 클럽이 되어 버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20년 동안 마약을 하다가 빠져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고 초청을 했다는 것이다. 같이 가서 치유사역을 하고 오려고 한다. 솔로몬은 헛된 것들과 참된 것들이 무엇인지 고백했다. 12월이 되면 한 달 동안 램프들이 전도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전도서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참으로 의미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결단하는 한 달이 되어야 되겠다.

1. 헛된 것이 무엇인가?

(1) 헛된 것의 정의를 생각해 보자. 가치 없는 것, 나쁜 것, 인생에 손해를 끼치는 것들이 헛된 것이다. 담배를 많이 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그런데 어느 날 폐암에 걸려 버린다. 문제없을 때는 모른다. 폐암에 걸리고 나면 ‘담배가 어떤 것 입니까?’ 할 때,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서야 깨달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헛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요, 공허한 것이요, 후회만 남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돈만 낭비하는 것이며, 고통만 남기는 것이며,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것이 헛된 것이다.

(2) 전도서 말씀 속에서 헛된 것들을 찾아보자. 전1:8을 보라. “눈은 보아도 족한 것이 없다.” 영화를 수백 번 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 순간 스트레스 해소일 뿐이고 결국 시간 낭비다. 복음 없이 지나치게 한 것은 결국 허망한 것이 된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귀로 음악을 얼마나 많이 듣는가. 그러나 그것이 영혼과 마음, 기쁨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작곡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참된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참된 것이 된다. 전1:13을 보라.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자연과학, 인문과 학의 연구가 헛된 것임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피로운 것이니, 하나

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결국 괴로운 것뿐이다. 하나님 떠나서 논문 쓰고 책 쓰고 연구하면 결국은 의미 없는 것이 된다. 전1:15에,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내가 386세대다. 우리 전공이 데모다. 그런데 보면 진짜 ‘네 인생이나 똑바로 해라’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다. 총장실 점거하고 단식한다더니 뒤로는 술담배 다 하면서 닭발 먹더라. (웃음) 주장하고 큰소리친다 해도 안 되게 되어 있다. 오히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내 현장을 살려내어야 복음 안에서 피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이 또한 헛된 것이었다. 전2:1을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전2:2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 ‘그것은 미친 것이다.’” 정형돈 씨가 불인장이라고 하던데, 어떤 분은 나보고 전화해서는 “안녕하세요 정형돈 목사님!” 하던데. (웃음) 이경규 씨도 그렇고, 코미디언들을 잘 보라. 그렇게 웃기려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공황장애가 와 있다. 기회 되면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싶다. “당신에게 주는 레마(roma)의 메시지입니다. 형돈 씨.” (웃음) 진짜 미치도록 정신 문제로 가지 않는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나와야 하는데, 직업이니까 꺾어짜서 만들어내는 코미디는 결국 자신을 미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쌍하게 보일 뿐이다. 코미디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른다. 조금 가면 그래서 다 그만두지 않나? MC로 전향하고 아이디어 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다. 전2:3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솔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나는 여기에서 교수들, 엘리트들을 떠올렸다.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고 솔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엘리트들 모습이다. 지혜도 능력도 전문성도 다 있는데 솔로 딱이 된다. 변호사인 친구 하나가 이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되었다. 사법연수원은 매일 몇 기 선배들 만나서 술 먹고, 변호사들 만나서 술 먹고, 매일 술판을 벌인다는 것이다. 교수, 엘리트들이 다 그렇다. 헛된 것 아닌가? 전2:4 이하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모든 것이 솔로몬이 직접 벌여본 것들이다. 우리는 어항도 없는데 솔로몬은 연못을 크게 팠다. (웃음) 그런데 만족이 없는 것이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면서 지혜도 여전했고(전2:9), 왕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했다고 했다(전2:10). 그런데 결국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는 것이다(전2:11). 많은 책을 쓰고 공부하는 것도 피곤한 것이라고 했다(전2:12).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다른 말쯤은 한 번도 레마로 안 잡더니 이 말씀만 언약으로 잡고 그러면 안 된다. (웃음) 여러분, 책을 읽는 것도 힘든데, 많은 책을 썼다.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 “4대 성인이 괜히 4대 성인이 아니다. 4대 성인이 책 안 써서 성인 된 거야.” (웃음) 그래서 자기는 5대 성인 되기 위해서 책을 안 쓴다고 하더라. (웃음) 인간이 책 쓰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는가.

2.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1) 참된 것의 정의가 무엇인가? 나는 참된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것, 유익이 되는 것이 참된 것이다. 그래서 옳다 주장하는 것을 다 바꿔야 한다.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것이 아니다. 생명 살리는 진도에 유익한 것 외에는 옳은 것, 참된 것, 영원한 것이 없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 어떤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은 다 스포츠예요.” (웃음) 스포츠라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것 아닌가? 이것을 한다는 것이다. 프로다. (웃음) 그렇게 싸우고 나오면 금방 악수하고 화해하고 그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한번 마우면 정말 싸운다. 상종도 안 한다. 어리석고 수준이 낮다는 증거다. 여러분, 인생의 프로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참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는 것이다. 솔로몬은 쾌락도 다 가져 봤지만 나중에 후회가 되었다고 했다. 그런 에너지, 정력,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에 쫓겨야 하는데, 인생 말년에 후회하면서 끝내는 인생이 얼마나 많나? 그래서 나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죽기 전에 반성 다 하고, 반성문을 12장이나 쓰고 갔지 않나. (웃음)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갔다. 우리는 그렇게 여자도 많이 못 얻고 돈도 많이 못 벌었는데, 반성도 못 하고 유익도 안 남기고 가면 얼마나 억울할지겠는가? 참된 것은 계속해서 열매를 얻는

보람된 것이다.

(2) 전도서 본문에 있는 참된 것을 찾아보자. 전12:1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청년의 때부터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전도서의 결론이 이것 아닌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간은 반드시 노인이 될 때가 온다. 전12:3-7을 보라.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솔로몬이 허리가 구부러진 것 아닌가 싶다. 자기 상황일 수도 있다. “뱃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귀도 안 들린다. 그 좋은 음악이 안 들리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된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렇게 예뻐던 여자가 이제 늙었는데, TV에 딱 붙는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 뱃살이 눈에 띄니까 안스러웠다. 그런 것을 보면, 원더걸스 선예는 정말 잘 했다. 선교사님과 결혼했는데, 너무 잘 한 것이다. 반짝 성공한 다음에 믿음의 길 갔지 않나? 믿음의 길로, 아름답게 늙어야 한다. 나이 들어서 밍게 되지 않고, 그런 아름다움을 소유하시기 바란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감버섯이 얼굴에 생긴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폐가가 되어서 다 무너져 버렸다. 은 줄, 금 그릇으로 가득찼던 잔칫집이 폐가가 되는 때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이다. 전12:7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이 오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참된 것은 무엇인가? 전7:2에,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돌지어다.” 언젠가는 우리도 떠날 때가 있다. 미운 사람 있어도 조금만 참아라. 어느 날 안 보일 때가 금방 온다. 그래서 사랑하고 이해하라.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못 참겠나. 보기 싫은 남편, 아내, 조금만 참아라. 금방 아쉬워지는 때가 온다. 그때를 생각하며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만 남게 된다. 어머니 앞에서 나도 큰소리를 쳐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더라. 어머니가 그렇게 떠나실 줄 알았으면 좋은 말쯤만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젊은 분들, 램넌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인생을 정말 참된 것으로 성공하는 여러 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세월이 많이 남았는데 더 멋있게 살아야 하지 않나.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전7:5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할 참되고 영원한 가치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1)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증거하는 것만이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 (2)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임을 뿌리내려야 한다.
- (3)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마가디락방에서 모인 성도들의 믿음과, 목숨을 걸고 그들이 올인했던 세계복음화의 언약만이 참되고 소중한 것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언약의 여정임을 체질화해야 한다. 그들의 체질이 2천 년을 뛰어넘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
- (4)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24시 집중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24시 기도 집중을 해야 되겠다.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24시 유일성에 집중해야 되겠다. 전문성, 유일성, 24시 전문성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전도현장이기 때문이다. 교회 부흥, 세계복음화, 램넌트 키우는 데 장애가 되는 불신앙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24시간 말씀만 집중하는 이것들이 참된 것임을 명심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는 나쁜 것이 계속 떠오른다. 틀린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세상이 들려주고 마귀가 들려준다. 이것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그것이 체질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문제 오면 말씀이 떠올라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족속을 제사 삼아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것이 떠올라야지, 내 체질이 떠오르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읽으면서 모든 것을 바꾸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으로 채워서 많은 응답을 받는 성도들과 우리 램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같이 결단하자.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버리고 2015년을 마무리하며, 2016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참된 것, 영원히 남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24시 누리는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